

비교문화적 화용론 관점에서 본 한국어·베트남어 거절화행에 관한 연구

응티 탄 프 영* · 김 영 순**

(인하대학교)

* 주저자

** 교신저자

ABSTRACT

Duong, Thi Thanh Phuong · Kim, Youngsoon. 2019. A Study on Refusal Speech Act of Korean and Vietnamese from a Cross-Cultural Pragmatic Perspective.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55. 157-18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fusal speech act strategies of Vietnamese Native Speakers (VNS) and Korean Native Speakers (KNS). Furthermore, this study is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usage patterns focusing on cultural and linguistic aspects with comparative viewpoint. The research aim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design of teaching and learning for Vietnamese Korean learners. To compare the patterns of refusal strategies between the two groups, the study looked at the refusal strategy patterns of 20 VNS and 20 KNS using the data collection method from the discourse completion test (DCT), which is commonly used in the speech act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ith regard to the overall tendency of the use of refusal strategies by the KNS and VNS, both groups were confirm that they preferred indirect refusal strategies over direct refusal strategies. Secondly, differences emerged in the usage patterns of refusal strategies in the two groups according to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conversation participants, where VNS showed that the closer the relationship was, the more direct or determined refusal strategies were used than KNS did. Thirdly, as there are refusal strategies that are widely used in Korean but not used in Vietnamese, or be useful to Vietnamese but not used by Korean, the education of refusal speech act should be focused on cultural characteristics in every language.

(Inha University)

핵심어: 한국어(Korean language), 베트남어(Vietnamese language), 거절화행 (refusal speech act), 비교문화학(cross culture), 화용론(pragmatic)

1. 서론

최근 들어 언어 교육이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 초점을 두면서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발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 교육의 추세는 화용론적인 오류가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오경숙, 2011). 특히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 원어민들은 문법적인 오류보다는 화용적인 오류에 더 민감하나, 이와 반대로 학습자들은 화용적 문제보다는 문법적 오류에 더 신경을 쓴다(이혜영, 2009). 따라서 학습자들이 원어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대화할 수 있게 하는 화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서 일어나는 화용적 실패는 화자의 판단에 청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발화의 힘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다(Thomas, 1983). 즉, 이문화간의 문화적 차이는 의사소통의 화용적 실패의 주원인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표어의 화용 지식이 부족한 비원어민 화자는 자신의 모국어에 기반을 두어 구사하게 되고 여기서 모국어의 화용적 전이로 인한 화용적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목표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도 출신 문화권 혹은 언어권이 상이하면 그 어려움이나 오류도 상이하게 나타난다(이혜영, 2002). 따라서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학습자들을 위한 유용한 한국어 화용적 특성을 제시하려면 비교문화적 관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화행 중에서 거절 화행은 요구, 요청, 제안, 설득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오경숙, 2011)으로 상대방의 체면 위협이 큰 행위이며 대화 참여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거절을 할 때에는 화자가 여러 가지 전략과 언어적 표현을 복합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어 화행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과 학습자의 화행 수행 양상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특정 언어권의 학습자들은 그 언어권의 언어적·문화적 영향 하에 외국어를 발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언어·문화권 출신 외국인 학습자의 거절 전략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여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의 진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화행 수행이 한국어 화자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화행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 기간 국내의 거절 화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재, 드라마, 사진, 한국어능력시험 대화문 등을 분석하여 화행이 실현되는 언어적 전략적 양상 연구(강현화, 2007; 김하나, 2014; 서희정, 2001; 추준순, 2012; 최혜민, 2013 등)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와 특정 언어권 모어 화자나 학습자 간의 화행 실현 양상에 대한 비교연구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이해영, 2013; 최연선, 2013; 최죽산, 2010; 폴리 룡, 2015; 혼다토모쿠니·김민규, 2012; 윤미라, 2017; 윤경원, 2017; 폴리 룡, 2017; 황정혜, 2018; 황선영 외 2018; 윤은미, 2004). 한국어 모어화자와 한국어 외국인 학습자, 또는 특정 언어권 모어 화자의 거절 화행 실현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거절 화행 교육, 나아가서 상호언어 교육의 화행 교육의 교수학습 설계에 있어서 의미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분석결과에서 화행 실현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원인을 설명해줄 수 있는 각 집단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처럼 다양한 언어·문화권 출신 학습자로 구성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공식적 우호 관계가 맺어진 이후부터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¹⁾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화용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베트남인 학습자에 대한 연구동향을 다룬 남은영 외(201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베트남 학습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어휘, 발음, 문법 등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 반면 화용, 문화, 문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다. 특히 화행과 관련해서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

1) 2018년 현재 국내 체류 총 베트남 유학생 수는 27,061명이며 그 중에서 어학연수생 수는 18,791명이다. 그러나 베트남어권 학습자는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인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 26개의 대학의 한국(어)학과, 그리고 수많은 한국어 학원 등에서 취직, 유학, 취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그 숫자가 적지 않다.

된 연구는 최연선(2013)을 유일하게 들 수 있으며, 베트남 결혼 이민자의 거절 화행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어 모어 화자(Vietnamese Native Speaker/이하 VNS)와 한국어 모어 화자(Korean Native Speaker/이하 KNS)의 거절 전략 양상에 대해 문화·언어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두 집단의 거절 전략에서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화용 교육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VNS와 KNS의 거절화행 전략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VNS와 KNS의 거절화행 전략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비교문화적 화용론

Alessandro Ferrara(1985:138)는 화용론은 발화의 언어적 특징과 사회적 행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Jef. Verschueren(1999:7)에 따르면 화용론은 언어 사용과 행동 방식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언어적 현상에 대한 인지·사회적·문화적 접근이라고 보고 있다. Jacob Mey(2000:6)에서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의 사용을 연구하는 학문을 화용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모든 정의에서 일치하는 점은 화용론은 ‘언어의 사용’을 연구한다는 것이며, 언어의 사용은 ‘사회적인 상황맥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박영순, 2007).

비교문화적 화용론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화용적 실패를 연구함으로써(Kasper & Blum-Kulka, 1993),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의 향상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이다. 언어 행위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되 그것을 사용하는 화자와 청자,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구성되기 때문에, 한 언어에서의 언어 행위를 연구할 때 언어적 요소뿐 아니라 그 언어의 외적인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이성범, 2015:284). 문화적 배경, 사고방식,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는 원어민과 비원어민 화자, 즉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서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용적 현상을 이문화 간의 비교를 기반으로 하여 대화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사회문화적배경이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이해영, 2002; 이해영 외, 2016).

이러한 맥락 하에서 최근 들어 국내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는 음운적, 통사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문화간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실패에 초점을 두어 비교 문화적 화용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행 연구가 이루어진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언어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그간 음성음운학적인 면에 치우쳐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비교문화적 화용론 관점을 중심으로 거절 전략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한다.

2.2. 거절화행과 공손성

사전적 의미에서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 제안, 선물, 부탁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행위를 뜻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earle과 Vandervken (1985:195)에 따르면 거절 혹은 거부는 부정적 수용을 뜻하는 것이며, 한 사람이 제안, 요청, 초대 등을 동의할 수 있듯이 거절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한 사람의 거절 방식이 거절하는 것 자체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화자의 요청이나 제안, 초대 등을 수용하지 않고 물리치는 거절은 발화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때에 따라서 단순한 표정 등과 같은 비언어적 언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김하나, 2014). 또한, 거절은 청자가 화자의 의뢰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면을 위협하고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부담스러운 화행이기도 하다. 거절은 체면 위협 행위로(Brown & Levinson, 1987) 화자는 거절할 때 체면유지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실현한다(Gass & Houck, 1999). 즉, 체면손상을 감소하기 위해 대화참여자는 의사소통 과정에

서 공손성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공손성은 하나의 언어의 기능으로 상대방의 교감을 통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대인관계 유지 기능과 밀접하다. 그러나 각 언어에서 나타나는 공손성은 문화권 저마다의 특징, 개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를 것이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두 문화권에서는 공손성이 ‘미풍양속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형식적 규범으로’ 널리 존재하고 있는데(박소연, 2017), 이러한 공손성은 거절과 같은 부담스러운 화행이 실현될 때 더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베트남어에서의 공손성을 다루는 Tạ Thị Thanh Tâm(2009)은 베트남 사람이 생각하는 공손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은 대부분 공손성은 체면과 관련성이 있다고 여긴다. 언어적 수단과 비언어적 수단이 모두 포함된 공손성은 동양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베트남 사람들은 공손성을 중요시하고 이는 또한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기준으로 여긴다. 무엇보다 베트남 사람은 한 개인의 공손성, 혹은 비공손성은 그 개인의 인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어에서의 공손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자면 공손성을 실현하는 언어적 장치와 화용적 전략이다. 먼저, 공손성의 기능이 내포되는 언어적 장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에서는 문장 시작말에 ‘Đạ’/‘vâng’의 사용이나 끝말에 ‘ạ’의 사용 또는 호칭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발화의 공손성이 결정된다. 베트남어에는 복잡한 호칭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화문에서의 호칭의 사용은 공손한 표현 방식이다(Tạ Thị Thanh Tâm, 2009). 예컨대 “Cô có cần em giúp gì không ạ?(선생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문장에서 ‘Cô’는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em’은 학생이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자기를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 이를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저, 제가’와 비슷하다. 이 문장에서 ‘ạ’는 존대 기능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인 ‘cô’나 화자 지칭 표현인 ‘em’을 하나라도 생략하면 무례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느냐, 또는

간접적으로 밝히느냐 등에 관한 화용적 전략도 공손성을 매우 현저하게 드러내는 방법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대화에서 개방적인 면과 소심한 면을 모두 보인다. 이는 베트남의 마을 공동체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을 공동체는 ‘달한 원형의 문화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규칙대로 행동하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 공동체를 벗어나면 본인의 위치 혹은 서열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소심해진다(Lai Phi Hùng, Nguyễn Đình Hòa, 2013:187). 또한 베트남인은 마을 공동체에서의 서열 제도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명예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따라서 대화할 때 직접적으로 본인의 감정이나 요구 등의 표현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베트남인의 특징은 대화에서의 과도한 완곡 표현의 사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도 역시 공손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 문법 요소에 의해서 표현하는 방법(주격조사 ‘가’ 대신 ‘께서’, 선어말어미 ‘-시-, -으시-’의 사용 등), 높임어휘를 사용하는 방법(‘밥’, ‘술’ 대신 ‘진지’, ‘약주’ 사용 등), 화용적인 공손표현(직접적인 거절보다는 간접적인 거절, 명령문의 요청보다는 의문문 요청) 등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하다(문금현, 2017).

이처럼 공손성의 언어적 장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어는 발달된 경어법 체계로 한국어 공손성의 언어적 장치가 베트남어보다 훨씬 다양하다. 그리고 베트남어에서의 호칭 사용 유무의 높임 기능은 한국과의 차이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베트남어와 한국어 두 언어권에서의 공손성의 언어적 장치는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어	베트남어
어휘에 의한 높임법	- ‘밥’→‘진지’ - ‘나이’→‘연세’ - ‘집’→‘댁’ 등	- 호칭 사용의 유무
문법에 의한 높임법	- 종결어미(-아요/-어요) - 연결어미(‘-으니까’ 대신에 ‘-어서’) - 선어말어미(‘-(으)시’등)	- 시작말 ‘đạ/vâng’ - 끝말 ‘ạ’

<표 1> 한국어와 베트남어 공손성의 언어적 장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과 베트남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다는 가장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문법이나 어휘 등 언어적 요소를 떠나서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공손성은 각 문화권 저마다의 가치나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의사시통에 있어서 서열이라는 요소가 다소 작용하여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 거리 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대화 방식이 달라진다(허상희, 2012). 이에 반해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위치라는 요인이 철저히 작용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상황’과 ‘친소관계’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즉, 한국어의 공손성은 ‘힘’과 ‘거리’, 그리고 ‘상황’이 모두 철저히 작용하면 베트남어의 공손성은 ‘거리’와 ‘상황’요인이 먼저 작용하고 ‘힘’요인은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한국보다 약하게 나타난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거절화행 실현 양상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거절화행 실현 시 많이 작용될 공손성이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어떠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두 언어의 거절화행의 공통점 및 차이점의 화용적 원인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3. 거절화행의 분석들

Beebe와 Cummings(1985)가 의미구를 분석 단위로 하여 거절의 분석틀을 제시한 이래 언어학자들에 의한 다양한 거절 분석틀이 제시되어 왔다(서희정, 2001). 그러나 이는 본래 영어의 거절화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절 분석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거절화행을 대조 분석하기 위하여 만든 장미전(2010)의 분석틀과 선행연구들(최연선, 2013; 황정혜, 2018)에서 제시하는 분석틀을 토대로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하게 거절화행의 분석틀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하지만 거절전략 중에서 본 연구에 나타나지 않은 전략은 제외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거절전략 분석틀에는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대답에서 나타난 전략인 ‘양해 구하기’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분석틀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거절화행 전략 사용양상을 비교분석하는 데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의 거절전략 분석틀은 다음 <표 2>와 같다.

상위범주	하위 범주	예시
직접 거절	단정적	“아니 보험엔 관심이 없어서...”
	비단정적	“어려울 것 같아요.” / “괜찮습니다!”
간접 거절	사과하기	“죄송해요.” / “미안해요.”
	이유대기	“나 보험 이미 몇 개 들어놨가지고.”
	권심표현	“진짜 가고싶은데...”
	대안제시	“다른 학우를 대신 찾아보겠습니다.”
	과거가정	“미리 말했으면 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미래수락	“나중에 가자.”
	능력부정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보상하기	“축의금은 크게 보내줄게.”
	아쉬움	“너무 아쉽다.”
	되묻기	“금요일?”
	양해구하기	“Thông cảm nhé!” (양해를 해줘!)
	비난하기	“미쳤어?”
	받은 셈치기	“일정을 다시 확인할게.”
주장하기	“과제는 스스로 해야하는 거야.”	
부가 표현	축하하기	“정말 축하해!”
	감사하기	“감사합니다.”
	담화표지	“아...”
	호칭	“Mày ơi!” (야 너)

<표 2> 거절화행 분석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의 거절화행 전략들의 가장 상위범주는 직접 거절전략과 간접 거절전략, 그리고 부가표현 전략이다. 직접 거절전략은 수행동사나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요청, 제안, 부탁 등을 직접적으

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전략이다. 이와 달리 간접 거절전략은 상대의 요청이나 제안, 초대, 부탁 등을 사과를 하거나 이유 설명 등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가표현 전략은 독립적으로 거절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요청자의 체면 손상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며, 비교적 부담스러운 거절화행에 있어 지지 역할을 한다. <표 2>에서 제시되는 거절 예시들은 본 연구 대상자들의 대답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KNS와 VNS의 거절화행을 비교하기 위해 화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담화완성형설문지(Discourse Completion Test/이하 DCT)를 통해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DCT는 Blum-Kulka(1982)가 개발한 방법으로, 설문 대상자가 주어진 짧은 대화 상황에 대해 언어적 반응을 기록하는 형태이다. DCT는 짧은 시간동안 한꺼번에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DCT는 같은 상황과 조건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권 화자들 간의 발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DCT를 활용하였다.

KNS와 VNS를 대상으로 실시한 DCT설문지는 거절을 도출할 수 있는 요청, 초대, 제안, 제공, 제의의 5가지 유도 화행 상황이며, 요청자의 지위가 높고 낮음과 요청자와 거절자의 친소 관계 등 사회적 변인을 고려되어 총 10가지 상황으로 만들었다. 설정된 상황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상황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가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친구, 선후배, 교수, 교직원 등과의 대화 상황 가정 하에 수정·보완을 하였다. 각 문항은 간단한 상황 설명과 함께 대화문으로 되어 있으며 피실험자가 빈칸에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 대학생 20명과 베트남 대학생 20명이며, 두 집단은 각각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응답자가 작성한 답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발화와 다를 수 있다는 담화완성형설문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응답 요령을 미리 제시하였다.

또한, 담화완성형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연구자가 설정한 상황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앞서 제시한 거절화행의 분석 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두 집단의 거절 전략 양상을 크게 직접적 거절, 간접적 거절, 그리고 부가표현으로 분류하여 이를 토대로 상황별, 그리고 집단별 비교·분석 과정을 거쳤다.

4. KNS와 VNS의 거절전략 사용 양상 비교

4.1 상황별 거절전략 사용 양상

두 집단의 거절전략 실현양상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발화 양상이 나타났는지, 즉 과제내용, 화-청자의 관계, 화-청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상황별 거절전략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KNS와 VNS의 거절전략 사용양상의 구체적인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찾음으로써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거절화행 교육, 나아가 상호언어 화행교육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KNS와 VNS 두 집단의 집단별 세부 거절 전략 양상을 분석하여 각 집단에서 상황별로 직접 거절전략, 간접 거절전략, 거절 부가 표현 전략에 세부 전략 중 어떤 전략을 선호하여 사용하는지를 비교하였다.

상황1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는 상황					
전략	세부 전략	KNS		VNS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직접 거절	-	8	40	5	25
간접 거절	1. 이유대기	20	100	20	100
	2. 사과하기	17	85	14	70
	3. 되묻기	3	15	0	0
	4. 미래수락	1	5	1	5
	5. 아쉬움	0	0	1	5
	6. 양해구하기	0	0	2	10
부가표현	1. 감사하기	0	0	1	5
	2. 축하하기	1	5	4	20

〈표 3〉 상황1에서 두 집단의 거절 전략 양상

상황1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는 상황이며 두 집단의 거절 전략 양상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KNS와 VNS 두 집단 화자들은 직접적인 거절 전략보다는 간접적인 전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KNS 집단의 20명 화자 중에서는 8명이 직접적 거절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거절 의사를 밝혔으며, VNS 집단의 응답자의 경우 25%의 응답자가 직접 거절 전략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특히 이유를 제시하면서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은 두 집단에서 절대적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초대자에게 사과를 하는 경우도 85% KNS와 70%의 VNS가 이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1에서 KNS와 VNS 두 집단의 거절 전략 양상의 차이점은 KNS의 ‘되묻기’ 세부전략과 VNS의 ‘양해구하기’ 세부 전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KNS의 경우 ‘되묻기’ 세부전략은 “금요일이야?” 또는 “생일이야?” 등과 같이 시간이나 사건에 대해서 반복하여 물은 것이었다. VNS의 경우에는 “양해를 부탁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생일 파티에 갈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의 양해를 구함으로써 거절의 부담감을 줄이려고 하는 전략이다.

상황2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는 상황					
전략	세부 전략	KNS		VNS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직접 거절	-	7	35	7	35
간접 거절	1. 이유	17	85	19	95
	2. 사과	12	60	8	40
	3. 조건 수락	2	10	1	5
	4. 보상	3	15	3	15
	5. 아쉬움	1	5	6	30
	6. 놀라움	1	5	0	0
	7. 양해구하기	0	0	1	5
	8. 받은 셈 치기	2	10	1	5
	9. 대안제시	3	15%	0	0%
	10. 미래수락	1	0	0	0%
부가표현	1. 축하하기	2	10%	4	20%
	2. 답화표지	2	10%	0	0%

<표 4> 상황2에서 두 집단의 거절 전략 양상

상황2는 친한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고 거절하는 상황으로 화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DCT 응답자들의 거절 전략은 역시 상황1보다 상황2에서 더 복잡적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KNS와 VNS는 모두 ‘이유대기’의 세부전략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사과하기’ 세부전략도 동시에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의 거절 실현 양상에 있어서 사과 빈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친한 사이에서 VNS는 KNS보다 ‘사과하기’ 세부전략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 KNS보다 VNS의 거절 전략은 덜 복잡적인 양상을 보였다.

상황3 교수님으로부터 번역 요청을 받는 상황					
전략	세부 전략	KNS		VNS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직접 거절	-	7	35	7	35
간접 거절	1. 이유대기	9	45	12	60
	2. 사과하기	12	60	13	65
	3. 능력부정	10	50	7	35
	4. 대안제시	4	20	4	20
	5. 양해구하기	0	0	2	10

〈표 5〉 상황3에서 두 집단의 거절 전략 양상

상황3은 교수님으로부터 번역 요청을 받는 상황으로, 청자의 위치가 화자보다 높으며 번역이라는 과제의 부담도 매우 큰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양 집단은 모두 ‘이유대기’, ‘사과하기’, ‘능력부정’, 그리고 ‘대안제시’의 세부전략을 수행함으로써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공통점은 한국과 베트남의 유사한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베트남인과 한국인은 모두 교수를 존중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교수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거절해야 할 때, 두 집단은 모두 상대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이유대기’, ‘사과하기’, ‘능력부정’ 그리고 ‘대안제시’의 세부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상황3에서도 역시 VNS의 거절 전략 중에서 ‘양해구하기’의 세부전략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VNS의 관용적 표현은 상황3에서의 두 집단 간의 유일한 차이점이다.

상황4 친한 친구로부터 과제를 대신하는 도움 요청 받는 상황					
전략	세부 전략	KNS		VNS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직접 거절	-	3	15	8	40
간접 거절	1.이유대기	14	70	15	75
	2.사과하기	7	35	11	55
	3.주장하기	7	35	5	25
	4.대안제시	1	5	3	15
	5.비난하기	2	10	0	0
	6.양해구하기	0	0	2	10
부가표현	담화표지	1	5	2	10

〈표 6〉 상황4에서 두 집단의 거절 전략 양상

상황4에서는 친한 친구로부터 과제를 대신하는 도움 요청을 받는 상황으로, 청자와 화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으나, 요청의 부담도는 적지 않다. <표 6>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집단은 직접 거절 전략의 사용에 있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KNS보다 VNS가 직접적인 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VNS가 KNS보다 단호한 거절 전략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비난하기’, ‘주장하기’ (니가 해!) 등과 같은 간접적이지만 매우 단호한 전략들은 KNS응답자에 의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간접적인 전략에서 두 집단은 ‘이유대기’, ‘주장하기’, ‘사과하기’ 등을 선호하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VNS의 전략에 있지만 KNS의 전략에 없는 ‘양해구하기’ 세부전략, 반대로 KNS는 사용하지만 VNS는 사용하지 않은 ‘비난하기’ 세부전략 등은 약간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황5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는 상황					
전략	세부 전략	KNS		VNS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직접 거절	-	5	25	1	5
간접 거절	1. 이유대기	18	90	18	90
	2. 사과하기	15	75	11	55
	3. 동정하기	1	5	2	10
	4. 대안제시	0	0	1	5
	5. 조건수락	1	5	1	5
	6. 과거조건 수락하기	1	5	0	0
	7. 양해구하기	0	0	6	30
부가표현	담화표지	1	5	0	0

〈표 7〉 상황5에서 두 집단의 거절 전략 양상

상황5는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다. <표 7>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VNS보다 KNS집단은 상당히 직접적 거절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KNS가 VNS보다 단호한 거절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은 모두 ‘이유대기’, ‘사과하기’, ‘조건수락’, ‘동정하기’ 등 다양한 간접적 세부전략으로 거절의 부담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NS집단에서 30%의 응답자가 다른 거절 상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시 ‘양해구하기’의 세부전략을 사용하여 요청에 응해주지 못함에 대해 청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6 친하지 않은 친구로부터 보험가입 요청을 받는 상황					
전략	세부 전략	KNS		VNS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직접 거절	-	5	25	3	15
간접 거절	1. 이유대기	17	85	17	85
	2. 사과하기	7	35	8	40
	3. 미래수락	2	10	7	35
	4. 대안제시	1	5	0	0
	5. 비난하기	1	5	0	0
	6. 양해구하기	0	0	1	5
부가표현	감사하기	0	0	4	20

〈표 8〉 상황6에서 두 집단의 거절 전략 양상

상황6은 친하지 않은 친구로부터 보험가입 요청을 받는 상황이며, 친하지 않은 사이, 그리고 동등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화자들은 복잡한 거절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KNS가 VNS보다 직접적인 거절 전략을 사용한 것과 VNS의 부가표현 전략인 ‘감사하기’의 사용이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간접 거절 전략에서 35%의 VNS의 ‘미래수락’ 세부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NS의 1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NS 응답자의 5%가 ‘양해구하기’ 세부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7 친구로부터 도서관에 가자는 제안을 받는 상황					
전략	세부 전략	KNS		VNS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직접 거절	-	3	15	2	10
간접 거절	1. 이유대기	20	100	20	100
	2. 사과하기	9	45	6	30
	3. 미래수락	5	25	10	50
	4. 대안제시	0	0	1	5
	5. 주장하기	0	0	1	5
부가표현	답화표지	1	5	2	10

〈표 9〉 상황7에서 두 집단의 거절 전략 양상

상황7은 친구로부터 도서관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은 상황으로, VNS와 KNS는 모두 직접적 거절 전략보다는 간접적 거절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응답자는 모두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거절 의사를 밝혔으며, ‘사과하기’의 세부전략도 많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나타난 두 집단의 거절 전략의 차이점은 ‘미래수락’ 세부전략이다. KNS에 비해 VNS응답자들은 “나중에 가자!” 등과 같은 ‘미래수락’ 세부전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8 선배로부터 영화를 보자는 제안을 받는 상황					
전략	세부 전략	KNS		VNS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직접 거절	-	3	15	3	15
간접 거절	1. 이유대기	20	100	18	90
	2. 사과하기	10	50	7	35
	3. 미래수락	1	5	5	25
	4. 회피하기	0	0	2	10
	5. 대안제시	0	0	1	5
부가표현	되묻기	1	5	2	10

〈표 10〉 상황8에서 두 집단의 거절 전략 양상

상황8은 선배로부터 영화를 보자는 제안을 받은 상황으로 화자가 청자보다 위치가 낮으며, 요청의 부담감은 크지 않다. 이 상황에서 두 집단은 직접적인 거절 전략보다 간접적인 거절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적인 전략중에서는 ‘이유대기’, ‘사과하기’의 세부전략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상황8에서도 VNS응답자들은 ‘미래수락’의 세부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상황7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VNS의 거절전략의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상황9 학교 행정 교직원으로부터 커피 제안을 받는 상황					
전략	세부 전략	KNS		VNS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직접 거절	-	18	90	12	60
간접 거절	1. 이유대기	6	30	13	65
	2. 대안제시	1	5	0	0
	3. 미래수락	0	0	1	5
부가표현	감사하기	1	5	15	75

〈표 11〉 상황9에서 두 집단의 거절 전략 양상

상황9는 학교 행정 교직원으로부터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을 받은 상황이다. 다른 상황들과 달리 상황9는 부담이 크지 않고 학교 교직원과의 관계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VNS와 KNS 응답자들은 모두 단호하지 않은 직접적 전략(KNS의 경우는 ‘괜찮다’, VNS의 경우는 ‘Đạ không / dạ thôi’)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간접 거절 전략과 부가표현 전략에 있어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간접 거절 전략에서 65%의 VNS는 ‘이유대기’의 세부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KNS 응답자 중에는 30%만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부가표현 전략인 ‘감사’는 VNS가 75%, KNS가 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상황10 친구의 어머니가 식사초대를 받는 상황					
전략	세부 전략	KNS		VNS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직접 거절		9	45	1	5
간접 거절	1. 이유대기	19	95	20	100
	2. 사과하기	4	20	0	0
	3. 미래수락	9	45	8	40
부가표현	1. 감사하기	6	30	11	55
	2. 답화표지	2	10	1	5

〈표 12〉 상황10에서 두 집단의 거절 전략 양상

상황10은 친구의 집에 놀러왔는데 가려고 했을 때 친구의 어머니가 식사를 같이 하자는 초대를 받은 상황이며, 화자는 청자보다 위치가 낮으며 요청의 부담감이 크지 않다. 이 상황에서 VNS와 KNS는 공통적으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거절 의사를 밝히고 체면 위협을 줄이는 것이 앞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 거절전략의 사용과 같이 나타나는 직접거절 전략이나 부가표현 전략에 있어서는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아니에요/괜찮습니다’와 같은 비단호적 직접거절 전략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KNS와 달리, VNS는 직접 거절전략보다는 ‘이유대기’, ‘미래수락’등과 같은 간접 거절전략

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감사’와 같은 부가표현도 많이 실현하였다. 즉,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초대를 거절할 때, KNS는 직접 거절전략과 ‘이유’, ‘사과’, ‘미래수락’ 등과 같은 간접거절 세부전략, 그리고 ‘감사하기’의 세부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VNS는 대부분 ‘이유대기’, ‘미래수락’, ‘감사하기’ 등의 세부전략에 국한하고 있었다.

4.2 집단별 거절전략 사용 양상

앞절에서는 상황별 거절전략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KNS와 VNS의 거절화행 실현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직접, 간접, 부가표현 전략의 구성비에 의하여 다음 <표 13>과 같이 살펴보았다.

전략	KNS		VNS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1. 직접거절 전략	68	17.0	49	11.2
2. 간접거절 전략	316	78.8	341	78.2
3. 부가표현 전략	17	4.2	46	10.6
합계	401	100	436	100

<표 13> 집단별 거절전략 사용 양상

<표 13>에서와 같이, 주어진 동일한 거절 상황에서 KNS에 비해 VNS는 더 다양한 거절 전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KNS와 VNS 두 집단은 전반적으로 직접전략이나 부가표현전략보다 간접전략을 더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두 집단의 공통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절함에 있어서 KNS와 VNS는 상대방의 체면 위협 가능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거절이라는 부담감을 덜 느끼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이유대기’, ‘사과하기’, ‘대안제시’ 등과 같은 세부전략을 실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는 거절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NS가 실현한 거절전략 중에서 20.5%가 직접전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VNS에 비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VNS는 KNS보다 ‘감사’나 ‘축하’ 등과 같은 부가 표현의 세부전략을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KNS와 VNS의 거절전략 사용양상의 구체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거절화행 교육의 성공적인 교수학습 설계를 위해 기초적 자료 제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간의 수교관계가 갈수록 왕성해짐에 따라 베트남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한국인 학습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베트남계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베트남어 학습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어 모어 화자와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거절전략 사용 양상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베트남어-한국어 상호언어 화행교육을 수월하게 진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DCT를 활용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두 집단이 실현하는 거절전략을 탐색하고 비교 분석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KNS와 VNS의 거절전략 사용 양상의 전반적인 경향성과 관련해서 두 집단은 모두 직접 거절전략보다 간접 거절전략을 더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공통적 문화 특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유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베트남인은 거절화행과 같이 부담이 큰 화행을 실현할 때 최대한 공손성을 살리고 대화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거절전략보다 ‘이유대기’, ‘사과하기’, ‘대안제시’ 등과 같은 전략을 주로 실현하여 자신의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어권 학습자에게 거절화행교육을 진행할 때 이러한 공통점에 기반을 두어 간접적 거절전략을 강조하여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화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화-청자의 친소관계에 따라 두 집단의 거절전략 사용

양상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VNS는 KNS에 비해 친한 관계일수록 직접 거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화행 실현 시 화-청자의 친소 관계, 화-청자의 사회적 위치, 거절화행의 부담도 등 다양한 변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화-청자의 관계가 친한 경우에 VNS는 거절화행의 부담을 덜 느끼게 되며, 직선적으로 자신의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Đỗ Quang Việt (2004)에서 베트남인이 화자의 위치가 청자의 위치보다 높거나 화청자 간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일 경우 대부분 직접적인 요청 전략을 사용하는 결과와 같은 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베트남어에는 ‘힘’요소보다 ‘친소’요소가 공손성에 더 먼저 작용한 것이다. 이에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위한 화행 교육 진행 시 이러한 베트남인의 특징을 함께 반영하여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베트남어에는 나타나지 않거나(‘괜찮습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안 쓰지만 베트남인에게는 유용한 거절전략(‘Thông cảm nhé!’/‘양해해주세요.’)이 존재하고 있듯이, 화행교육에서 이러한 각 언어권의 특색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행양상은 문화권 저마다의 문화적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두 언어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손성의 내용이 같을지라도 그 전략이나 실현양상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의 제안이나 초대 등을 거절할 때 ‘괜찮다’와 같은 비단호적 거절전략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베트남어에서 이와 대응할 만한 표현이 없으므로 베트남인 학습자가 이러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반대로 베트남어 모어 화자들은 ‘Thông cảm nhé!’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청자의 요청이나 제안 등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전략이 상황별 골구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거절전략은 베트남어의 특징적 전략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각 언어권의 특징적 화행전략을 특정 장르 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거절화행에 기반을 두어 양 언어권에서의 거절전략 실현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어권 학습자를 위한 거절화행 교육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언어 학습자의 화용능력의 중요성이 더해져 특정 화행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화행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의 수가 한정적이고 특히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직업, 출신지역 등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또한, DCT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실제적 표정이나 반응, 목소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광범위의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성별, 직업, 연령, 출신지역 등 사회언어학적 변인들을 반영할 수 있으며, 역할극이나 실제 상황 녹화 등과 같은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현화(2007), 한국어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담화기능별 문형표현단위에 대한 연구, 응용언어학 23-1, 17-36쪽, 한국응용언어학회.
- 김하나(2014),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어 요청-거절 화행 분석, 한국어와 문화 15, 131-164쪽,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 남은영·이숙진·박혜란·장미선(2019), 베트남 학습자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한국어언어문화학 16-1, 97-129쪽,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 박소연(2017), 한국어 공손성 연구의 쟁점-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3-4, 59-82쪽,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 박영순(2007), 한국어 화용론, 박이정.
- 문금현(2017), 한국어 공손성 표현의 생성 유형별 특징 -공손성의 강도와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21, 51-75쪽, 국어학회.
- 서희정(2001), 한국어 거절 화행 교육 연구-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숙 (2011). 한국어 거절 화행 교육의 방안 -중급단계 학습자를 중심으로-,

- 서강인문논총 30, 179-206쪽,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윤미라(2017), 직장인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의 거절 화행 전략 비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9, 121-147쪽,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윤은미(2004),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화행에 나타난 공손전략 비교연구 - 체면보호를 위한 언어적 장치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9, 117-145쪽,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윤경원(2017), 한국어와 태국어의 거절화행 비교연구, 한국태국학회농촌, 23-2, 1-30쪽, 한국태국학회.
- 이성범(2015), 소통의 화용론 -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화용적 접근, 한국문화사.
- 이해영(2002),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화용 교육, 이중언어학 21, 46-70쪽, 이중언어학회.
- 이해영(2003), 일본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거절 화행 실현 양상 연구, 한국어교육 14-2, 295-323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해영(2009), 외국인 한국어 거절 화행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 연구, 한국어교육 연구 20-2, 203-22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해영·황선영·노아실·사마와디 강해(2016), 비교문화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본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과 화행 연구, 한국어교육 27-3,
- 최연선(2013),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 이민자의 거절화행 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죽산(2010), 한중 대학생의 거절화행 사용전략 고찰, 한국어와 문화 7, 119-160쪽,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 폴리 룡(2015), 홍콩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거절 표현 양상 연구, 화법연구 27, 139-174쪽, 한국화법학회.
- 폴리 룡(2017), 홍콩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과 거절 화행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혼다토모쿠니·김인규(2012), 한국어·일본어 거절화행의 비교 문화 화용론적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3, 563-595쪽, 국어교육학회.

- 허상희(2012), 한국어 공손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소통.
- 황선영·노아실·사마와디 강해(2018), 비교문화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과 태국인의 거절 화행 연구, 한국어교육 29-4, 225-254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황정혜(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거절화행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lessandro Ferrara (1985), *Pragmatics*, van Dijk.
- Beebe, L., M., Takahashi, T., & Uliss-Waltz., R.. (1990), *Pragmatic transfer in ESL refusals*, In C, Sercela, E. Anderson & D. Krashen (Eds),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in second language*, New York: Newbury House.
- Blum-Kulka, S. (1982), Learning how to say what you mean in a second language: A study of speech act performance of learners of Hebrew as a second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3, 29-59
- Jacob, M. (1993), *Pragmatics: An introduction*, Oxford, UK: Blackwell, 1993./ 이성범 역(2007), 『화용론 개관』, 파주: 한신문화사.
- Jef, V., *Understanding Pragmatics*. Arnold., 1998/김영순·지인영·이정환 역 (2003), 화용론 이해, 동인출판사.
- Kasper, G., Blum-Lulka, S. (1983), *Interlanguage Pragmatics*, Oxfrd, UK.
- Thomas, J.(1993), Cross-Cultural Pragmatic Failure, *Applied Linguistics* 4-2, 91-112,
- Đỗ Quang Việt(2004), *Khảo sát về cách biểu đạt hành động thỉnh cầu trong giao tiếp bằng lời của người Việt và người Pháp*, Đề tài NCCB XHNV cấp Đại học Quốc gia.
- Lại Phi Hùng, Nguyễn Đình Hòa(2013), *Đại cương văn hóa Việt Nam*, NXB Đại học kinh tế Quốc Gia.
- Tạ Thị Thanh Tâm(2009), *Lịch sử trong giao tiếp tiếng Việt*. Tp. HCM: NXB Tổng hợp

용티탄프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과
22212
전화: 032-860-7860
Email: thanhphuongdu@hanmail.net

김영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22212
전화: 032-860-7867
Email: Kimysoon@inha.ac.kr

논문 투고 일자 : 2019년 09월 15일
심사 완료 일자 : 2019년 10월 16일
게재 확정 일자 : 2019년 10월 18일